

태양광 버스정류장 공모 선정

전국 최초... 임실군, 3억원 들여 마을버스 정류장 22개소 냉난방 설치

임실군이 전국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버스정류장 냉난방시설 설치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군은 폭염과 한파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여 냉난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마을버스 정류장 22개소에 3억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이 사업은 폭염과 한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송풍기와 탄소소재 온열의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정류장에 냉난방시설을 설

치하는 사업인 만큼, 임실역(하) 버스정류장 등 6개소에 대해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이후 설치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한 뒤, 올해 동절기 이전에 버스정류장 이용객이 많은 18개 마을버스 정류장을 선정, 11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추운겨울을 대비할 예정이다.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전 세계적 폭염, 한파 피해 발생 사례가 빈발한 가운데 임실군의 경우 40%정도의 많은 세대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많은 편이다.

군은 이들 주민들을 위해 이상 기후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고, 또 건강의 악영향을 주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까지 고려한

친환경 에너지에 의한 시설을 갖춘 전망이다. 신령면 북창마을 주민 박성래씨는 "숨조차 쉬기 어려운 폭염과 너무 추운 한겨울에 냉난방이 가능한 시설을 버스정류장에 설치해 주니 너무 좋다"며 "버스를 기다리며 더위에도 추위에도 끄덕없는 정류장이 있어 참 좋다"고 말했다.

심 민 군수는 "앞으로 남은 폭염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한파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친환경적인 기후변화 대응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생활정책을 많이 발굴, 추진하여 임실 주민들이 하나둘 모두가 행복한 임실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총영 기자

사용 편리한 순창사랑 상품권 만족도 높아

판매 11일째인 지난 16일까지 1억8000여만원 판매

순창군이 지난 1일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판매개시한 순창사랑상품권이 군민과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순창사랑상품권은 판매 11일째인 지난 16일까지 1억 8천여만원을 판매했으며, 이는 일평균 1천 6백만원으로 상품권을 운영하는 도내 타 지자체와 대비해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군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품권 할인율(7%)과 가맹점 수(900개소), 판매·환전대행점 확대운영(21개소), 상품권 이용 후 잔액 반환, 가맹점 상품권 환전시 당일 계좌이체 등 현금처럼 이용이 편리한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판매량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순창군이 지난 2007년 발행한 상품권은 상품권 금액의 80%이상 사용자 이용자에게 잔액을 반환하거나,

가맹점이 상품권 환전시 대금청구까지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등 제도적인 문제로 운영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군은 지난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가맹점 환전시 당일 환전과 이용가능한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상품권이 조기 정착하여 군민 모두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순창군은 그동안 상품권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현재까지 등록 가맹업체가 관내 900여개 업체로 군 전체 가맹대상 90%를 육박하며, 판매 대다수 소상공인이 가맹점으로 등록·운영되고 있다.

한편 순창군은 9월 2일부터 11일까지(10일간) 추석명절 특별이벤트 행사로 순창사랑상품권 구매시 할인율



순창군이 지난 1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판매개시한 순창사랑상품권이 군민과 이용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사업량 확대

순창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동오염원인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량은 국비 추가 확보로 인

해 예산이 증액 되어 70대 목표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급절차는 종전과 같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 접수하면 군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하게 된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 구입하는 경우 1대당 400만원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환경수도과(063-650-1721)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도가 지난 16일 황철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노홍래 순창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쌍치작은도서관에 도서 3000권을 기증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도, 순창 쌍치작은도서관에 도서 기증

한국문화예술위·구세군 통해 기부 받아 3000권 전달

전북도가 지난 16일 황철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노홍래 순창 부군수, 최영일 도의원, 손종석 군의원 등 관계자와 8개 마을주민자치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쌍치작은도서관에 도서 3000권을 기증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 5월 개관한 쌍치작은도서관은 2000여 권의 도서가 비치되었지만 서고에 비해 도서가 부족해, 개관식 후 다과회 자리에서 마을 주민자치위원 등 쌍치면 주민들은 황숙주 군수와 최영일 도의원, 도 관계자들에게 도서가 부족하므로 서가를 채워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도서 기증처를 확보하려 밤낮없이 된 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구세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랑의 기증도서 소외계층 배부사업'을 통해 3000권의 도서를 확보해 이번 기증에 나선 것.

이 사업은 지자체 및 출판사가

기증한 도서를 소외계층이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지역 도서관, 작은 도서관, 군부대 등 전국에 양질의 도서를 배분하여 문화소외계층들이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복지를 구현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날 기증식에 참석한 최영일 도의원과 노홍래 순창 부군수는 "도서관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채우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며 "이번에 기증된 도서로 학생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양한 독서체험을 하는, 평생학습의 좋은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송진원 쌍치면민회장도 전북도와 순창군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평생학습의 시대임을 절감한다. 인문학 강의도 적극적으로 듣고 앞으로 남은 생을 위해 새롭게 배우는 장으로서 우리 면민들 모두 도서관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고 말했다./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신규사업 140건 발굴 추진

남원시는 19일 이원주 시장 주재로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 및 2021년 국가예산 확보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부서별로 발굴한 보고사업은 총 140개 사업에 1051억원으로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20년 신규시책사업 중 시민생활편의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SOC 사업으로는 ▲산내면 반선보건진료소 신설 ▲미디어아트 전시관 조성사업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자체 보급사업 ▲저상 시내

버스도입 ▲신중년 패스파인더 사업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 등이 집중 검토되었다.

2021년 국가예산확보와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노선(R&D) 사업 ▲지역주도형 신중년 일자리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왕정공원 산림욕장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있다.

남원시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SOC 사업과 인구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2021년도 국가예산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 옷 소재활용 발전방안 논의

임실군이 임실 참옷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식품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옷의 식품산업 분야 확장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다.

임실군이 추진 중인 임실·순창 옷 발효식품 가치창조사업에 선정돼 5년간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총 65억원이 투입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군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근 임실·순창 옷 발효식품 가치창조사업에 대하여 임실군과 순창군, 사업단, 참여기관 연구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각 분야별 추진상황, 향후 전략 발표 및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옷의 식품 활용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 접목을 통한 일반 식품으로써의 확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합식적 원료 승인' 연구사업과 기 개발된 옷 활용 식품의 홍보마케팅 전략에 대한 내용들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발표자로 나선 (주)웰스케어 크레임스 백향임 팀장은 '개별인정 및 한시적원료 승인연구 컨설팅 결과보고'를, (주)프롬비오 윤정로 차장은 '원료 표준화 전략보고'를, (주)팍넷 최태환 대표는 '임실 옷 발효식품의 통합마케팅 전략 보고' 등에 대한 보고와 토의가 진행됐다. /임실=진총영 기자

남원 우량 딸기묘 생산단지 육성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에서는 '춘향골 딸기'의 품질을 극대화 시켜 전국 최고의 딸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우량 딸기묘 생산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춘향골 딸기' 재배면적은 140ha로 금지면과 송동, 주생면을 중심으로 재배되어 겨울철 시설원에 농가들의 소득향상에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딸기재배는 '모종농사가 전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량한 모종 확보가 중요하며, 남원시의 경우는 불과 3~4년전만해도 전체 묘 소요량의 35%이상이 인근지역으로부터 유입되었다. 외지 묘의 경우 묘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탄저병 감염 등 불량묘의 비중이 높아 수량과 품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묘 구입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외지로 유출되었다.

이에 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에게 2017년부터 시 자체사업으로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32농가 2.25ha에 추진하는 등 딸기묘 품질향상 및 노력절감에 노력하였다.

지금 시기는 하역제거, 질산칼륨 및 인산칼륨 1000배액 연면시비·관주처리 등 화이분화 준비를 위한 시기로 육묘후기 관리를 위해 현장지도도 강화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